



사이버 폭력이 뭘까?



폭력은 여러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어요.

가해자와 방관자들,
그리고 피해자는 같은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가해자의 괴롭힘은
같은 시간에 반복돼요.

가해자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행복을 느껴요.



사람들은 예기치 않게 가해자와 마주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좋은 방법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이버 폭력에 대해 생각해 특징을 쓰세요.

1.

2.

3.



사이버 폭력이 뭘까?



가해자와 피해자, 방관자는 같은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지요? 이 장소는 학교 운동장처럼 눈에 보이는 곳일 수도 있지만 가상의 공간일 수도 있어요. 바로 인터넷처럼 말이지요.

가해자가 기술을 사용하여 소셜 네트워크나 스마트폰 메시지 또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폭력을 쓸 때, 우리는 이것을 사이버 폭력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사이버 폭력이 실제로 몸을 때리는 폭력이 아니라서 덜 심각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실제 가해자들은 덩치가 크고 건장하며, 주먹으로 때리거나 심지어 칼이나 몽둥이를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할 때 우리는 모니터 밖에서 안전하다고 느껴요.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이 내 눈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걱정하냐고요?

왜냐하면 모든 상처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이버 폭력을 쓰는 가해자들은 키보드로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것은 때로는 어두운 골목을 홀로 걸어 들어가는 것만큼 위험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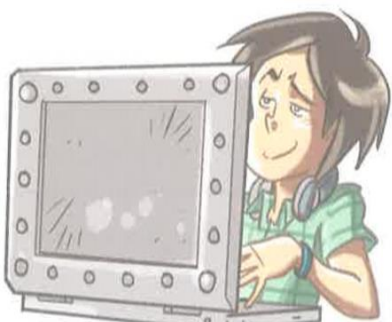
사이버 폭력은 여러분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고, 심지어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어요.

← 사이버 폭력에 대해 생각해 특징을 쓰세요.

1.

2.

3.





이야기를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기

민수는 수업 시간마다 발표를 적극적으로 하는 13살 소년이에요.

선생님이 질문하면 다른 아이들은 쭈뼛쭈뼛 선생님 눈을 피하는 반면,

민수는 손을 번쩍 들고 씩씩하게 자기 생각을 대답하곤 했어요.

같은 반 친구들은 민수의 그런 모습이 나대는 것 같이라며 뒤에서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민수를 싫어하는 친구 몇 명과 함께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민수를 초대했어요.

“야, 관심종자. 잘난 척 좀 그만하지.”

“니 나대는 모습 때문에 요즘 수업 끝나고 매일 토한다고.”

“발표 좀 하면 자기 인기가 올라가는 줄 아나 봐.”

“선생님이 질문만 하면 손이 완전 자동이야. 민수 재 로봇 팔 아니야?”

“애들아,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민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자기 욕을 하니까 너무 놀라 대화방을 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민수가 대화방을 나갈 때마다 계속 초대해서 민수를 욕했어요.

“어딜 나가?”

“왜 이 방에서는 침묵 깔고 그래? 수업 시간 때처럼 나불나불 떠들어 봐.”

“이 프사로 바꿔 봐. 관심종자에게 딱 어울리는 사진으로 내가 솜씨 좀 부려 봤어.”

아이들의 사이버 폭력은 계속되었어요. 심지어 민수의 사진을 이상하게 합성해서 올리고는 비웃으며 놀리기도 했어요.

민수는 점점 심해지는 아이들의 사이버 폭력에 괴로워하다가 여러 날 동안 학교를 결석했어요.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학교에 사이버 폭력으로 신고했어요.

민수 이야기를 읽고 문제점을 써봐요

1.

2.

3.

민수 이야기





이야기를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기



다양한 사이버 공격

민수의 사례에서 봤듯이, 그는 대화방에서 반 친구들의 비웃음과 놀림거리가 되었어요.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 민수를 따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이에요. 사이버 폭력은 이런 것 말고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이버 폭력을 정리해서 쓰세요.

1.

2.

3.

모욕 주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이 행위는 여러분의 페이스북 타임라인 댓글이나 커뮤니티와 게시판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사이버 폭력 가해자는 여러분에게 모욕을 퍼부어서 말을 못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해요.

괴롭힘



모욕 주기가 공개 소셜 미디어에서의 전형적인 공격이라면, 괴롭힘은 공개적이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읽을 수 있게 스마트폰으로 모욕적인 일대일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하지요.

명예 훼손



근거 없는 소문이나 거짓말을 퍼트려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목적이죠. 예를 들면, 엄마가 숙제를 대신 해주어서 풀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었다고 거짓 소문을 퍼트려 학교에서 눈총을 받게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지요.

사칭



사칭은 다른 사람의 신원을 몰래 쓰는 걸 말해요. 사이버 폭력 가해자들은 여러 이름으로 된 가짜 페이스북 프로필이나 가짜 이메일 주소 등을 만들어 여러분인 척하면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요.

따돌림



누군가를 우리에서 따돌려 외롭게 만드는 행위예요. 단체 대화방에서 유독 어떤 친구만 초대하지 않거나, 아무도 페이스북 친구를 맺지 않는 식으로요.

사이버 스토킹



휴대전화, 이메일, 대화방 등에서 공포감을 주거나,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상, 음성, 문자 등을 반복하여 계속 보내는 행위를 말해요. 특정한 사람을 미행하거나 전화, 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괴롭히는 스토킹과 유사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글과 영상을 보고 생각 정리해서 쓰기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정리해서 쓰세요.

1.

2.

3.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학교 폭력의 장소가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소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익숙한 사이버 기기가 괴롭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요. 국내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피해 유형 중 민수처럼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가 52%로 가장 많아요.

그다음으로 '허위의 글이나 비방하는 소문이 퍼졌다' 12%,

'위협이나 협박을 당했다', '성적인 메시지와 사진을 받았다' 10%,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 8% 순으로 나타났어요. 피해 사이버 공간으로는

SNS가 가장 높았고, 메신저, 온라인 게임 웹페이지 순으로 나타났어요.



사이버 폭력 예방 영상 